

기술분석보고서 건강관리

코렌텍(104540)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성자 박진희 책임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4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렌텍(104540)

인공관절 설계·3D 프린팅·환자 맞춤형 기술 기반의 정형외과 임플란트 전문기업

기업정보(2026.10.14 기준)

대표자	현동욱
설립일자	2000년 5월 30일
상장일자	2013년 3월 5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주요제품	인공고관절, 인공 슬관절, 척추고정체, 건관절 등

시세정보(2026.10.14 기준)

현재가(원)	5,38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721
발행주식수	13,407,410주
52주 최고가(원)	7,440
52주 최저가(원)	3,385
외국인지분율	3.32%
주요주주	정성이 외 15인

■ 인공관절 중심의 기술·생산 기반과 의료진 네트워크 보유

코렌텍(이하, ‘동사’)은 정형외과용 임플란트를 개발·제조·판매하고 있고, 자체 설계·연구개발 및 생산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 측면에서는 기존 고관절·슬관절 제품을 기반으로 인공건관절, 척추고정체, 인공족관절 및 환자 맞춤형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판매법인과 의료서비스 계열사를 통해 해외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정형외과 임플란트 설계·표면처리 기술, 자체 생산기반, 의료진과 연계된 제품개발 체계 및 기존 병원 네트워크가 동사의 경쟁력이고, 향후에는 제품군 다변화와 해외 인허가·판매채널 확대가 성장의 주요 방향으로 판단된다.

■ 고령화에 따른 수요 확대와 기술 고도화가 병행 중인 시장

목표시장은 기능이 저하된 관절을 인공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의료기기 시장이다. 인체에 장기간 삽입되는 제품 특성상 생체적합성, 내마모성, 기계적 내구성, 골 고정력과 임상신뢰도가 중요한 경쟁요소이며, 개발·허가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주요 성장요인은 고령인구와 골관절염 환자의 증가, 최소침습 수술 수요 확대이며, 기술적으로는 무시멘트형 임플란트, 다공성 표면처리, 3D 프린팅, 환자 맞춤형 수술기구 및 로봇·내비게이션 기반 수술지원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고부가 제품 고도화·미국시장 확대로 성장기반 강화

동사는 2025년 우성계약 지분 매각과 중국 법인 청산을 통해 인공관절 중심의 핵심사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했으며, 고관절·슬관절 제품의 고도화와 미국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제품 측면에서는 UCR 경골 삽입물의 미국 FDA 인허가, 무시멘트형 슬관절, 재치환·고난도 수술용 제품, 최소침습형 스템 및 3D 프린팅 기반 표면처리 기술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인공관절 수요 증가와 무시멘트형·환자 맞춤형 제품 확대가 성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해외 인허가 일정, 글로벌 대형업체와의 경쟁, 현지 의료진·유통망 확보가 주요 변수로 판단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920.5	44.0	70.5	7.7	51.3	5.6	5.8	2.9	117.3	306	5,514	38.7	2.2
2024	855.9	-7.0	33.7	3.9	-13.2	-1.5	-3.5	-0.7	120.6	-193	5,368	N/A	1.0
2025	1,004.3	17.3	91.2	9.1	69.7	6.9	8.3	3.9	92.8	467	5,844	14.4	1.2

기업경쟁력

인공관절 전문화와 자체 개발·생산체계	고관절·슬관절을 중심으로 제품 설계, 연구개발, 생산 및 인허가를 자체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 제품개선과 신규 라인업 확장에 유리
의료진 연계형 제품개발 역량	임상 의료진과의 협업을 통해 수술 편의성, 환자별 해부학적 차이 및 실제 임상 요구를 제품과 수술기구 개발에 반영
해외시장 진입 기반	미국 판매법인과 FDA 인허가 경험, 현지 의료·유통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 인공관절 시장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기반 보유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관절 운동학 기반 임플란트 설계 기술	인체 관절의 움직임과 골격 형상을 반영해 안정성·운동범위·마모 특성을 개선하는 기술로 BENCOX 고관절과 EXULT 슬관절에 적용
3D 프린팅 기반 다공성 표면·골유착 기술	DED 방식의 Z코팅 등으로 임플란트 표면에 뼈가 자라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구현하는 기술로 BENCOX MIRABO Z CUP과 차세대 무시멘트형 제품에 활용
환자 맞춤형 설계·수술지원 기술	의료영상 기반으로 환자별 골격을 분석해 수술계획과 맞춤형 기구를 설계하는 기술로 CORALIS PSI 및 3D 프린팅 기반 맞춤형 관절제품에 적용

시장경쟁력

고관절·슬관절 중심의 안정적인 주력 제품군	인공고관절과 인공슬관절이 사업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어 고령화와 관절질환 증가에 따른 구조적 수요 확대에 직접 대응
고난도·세분시장으로의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무시멘트형, 재치환용, 최소침습형 및 견관절 제품 등으로 적용 환자군을 넓히며 기존 범용 인공관절 중심의 경쟁에서 차별화를 추진
국산화 기반과 해외 인허가 병행	국내에서 축적한 제품 공급경험과 해외 FDA 승인 제품을 바탕으로 수입제품 대체와 해외시장 진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경쟁기반 확보

VRIO 분석 (VRIO Analysis)

VRIO(브리오) 분석이란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과 활용 능력을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 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도구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
인공관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고관절·슬관절 중심의 제품군과 3D 프린팅·골유착·환자 맞춤형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 수요와 직접 연결되는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인공관절 설계, 자체 생산, 다공성 표면처리, 환자 맞춤 수술지원 기술을 함께 보유하고 이를 실제 제품과 인허가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동종업체 대비 차별성이 있다.	인공관절 제품은 장기간의 임상경험, 의료진 신뢰, 인허가 이력, 특허와 생산 노하우가 함께 축적되어야 하므로 동사의 기술과 사업기반은 단기간에 모방하기 어렵다.	연구소, 생산시설, 임상 의료진 협업체계, 국내외 판매망과 인허가 조직을 갖추고 있어 보유기술을 제품개발과 상용화, 시장 확대에 활용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I. 기업 현황

인공관절 중심의 기술·생산 기반과 의료진 네트워크를 보유한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동사는 정형외과용 임플란트를 개발·제조·판매하고 있고, 천안 본사·공장을 기반으로 자체 설계·연구개발 및 생산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 측면에서는 기존 고관절·슬관절 제품을 기반으로 CORALIS 인공견관절, 척추고정체, 인공족관절 및 환자 맞춤형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판매법인과 의료서비스 계열사를 통해 해외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정형외과 임플란트 설계·표면처리 기술, 자체 생산기반, 의료진과 연계된 제품개발 체계 및 기존 병원 네트워크가 동사의 경쟁력이고, 향후에는 제품군 다변화와 해외 인허가·판매채널 확대가 성장의 주요 방향으로 판단된다.

■ 기업 개요

동사는 인공관절의 개발·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2013년 3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다. 동사는 인공고관절, 인공슬관절을 중심으로 인공견관절과 척추고정체 등 인체에 삽입되는 정형외과용 임플란트를 개발·제조·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인공고관절 BENCOX, 인공슬관절 LOSPA·EXULT, 척추고정체 LOSPA IS, 인공견관절 CORALI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의 사업모델은 자체 설계한 임플란트를 생산한 뒤 병원 또는 지역별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여 제품 판매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다. 2026년 상반기 별도 기준 인공슬관절과 인공고관절 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아 사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수요처는 정형외과 수술을 수행하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과 이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의료기기 유통·대리점이며, 해외에서는 현지 딜러와 미국 판매법인을 활용하고 있다.

생산은 충남 천안 본사·공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동사는 제품 설계와 연구개발 기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한편 가공·표면처리·조립 등 제조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공관절의 골 고정력과 생체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표면처리 기술과 금속 3차원 적층제조 기술을 주요 기술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2026년 상반기 원재료·반제품 매입액 중 수입 비중이 87.8%로 나타나 원재료 가격과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주요 인공고관절·인공슬관절 부품의 생산가동률도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어 생산설비의 이용 효율은 제품별 수요 변화에 영향을 받는 구조이다.

동사의 핵심 경쟁력은 장기간 축적된 정형외과 임플란트 설계 경험과 국내 의료진을 기반으로 한 제품개발 체계, 자체 브랜드 및 생산기반, 고관절·슬관절에서 확보한 기존 거래처 기반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문의의 요구를 중앙기술연구소가 제품 개선이나 수술기구 개발에 직접 반영하는 구조는 의료진과 제품개발 간의 연결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향후에는 기존 고관절·슬관절의 제품군을 세분화하는 한편 견관절·족관절·척추 및 환자 맞춤형 제품으로 적용 영역을 넓히고, 해외 인허가 확보와 현지 판매채널 확대를 통해 사업지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년도	내용
2000.05	법인 설립
2010.09	미국정형외과학회(AAOS) 최고논문상 수상
2012.02	유럽 CE 승인 (BENFIX Hip, LOSPA Knee)
2013.03	코스닥 시장 상장
2019.03	인공견관절 개발 (Coralis Total Shoulder System)
2020.03	척추 신제품(LOSPA IS) 미국 FDA 인증
2022.05	인공관절 비구컵(Mirabo Z Cup Cortinium) 미국 FDA 인증
2025.04	인공슬관절 UCR 타입 경골삽입물(Tibial Insert) 미국 FDA 인증

자료: 동사 홈페이지,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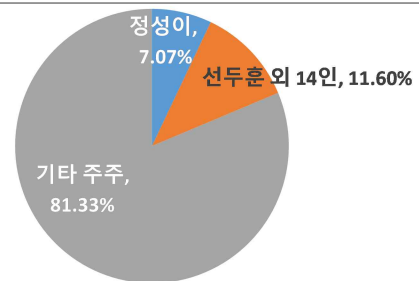
■ 주주 현황

2026년 6월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정성이 이노션 고문(현대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의 장녀)으로, 전체 발행주식(13,407,410주) 중 947,790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보통주 지분의 7.07%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선두훈 외 14인의 특수관계자가 1,555,022주(11.60%)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을 합계는 18.67%이다. 나머지 10,904,598주(81.33%)는 기타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한편, 2019년 발행했던 상환전환우선주가 2026년 5월 621,670주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발행·유통 보통주식수는 13,407,410주로 증가하였다. 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합산 지분율은 19.57%에서 18.67%로 낮아졌다.

전체적으로 동사의 지배구조는 특정 단일주주의 절대적 지배보다는 최대주주와 가족·관계법인의 공동 보유를 기반으로 하는 형태이며, 동시에 외부 일반주주의 지분 비중이 높은 구조이다. 최대주주 관련 지분의 안정적인 유지 여부와 함께 보통주 전환이나 추가 자본조달 등에 따른 지분 희석 가능성은 지배구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2]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보통주 기준)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정성이	947,790	7.07%	최대주주
선두훈 외 14인	1,555,022	11.60%	특수관계인
기타 주주	10,904,598	81.33%	
합계	13,407,410	100.00%	



자료: 동사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사업 영역

동사의 핵심 사업은 인공고관절과 인공슬관절을 중심으로 하는 정형외과용 인공관절 사업이다. 인공고관절 BENCOS는 손상된 고관절을 대체하는 임플란트 제품군이며, 인공슬관절 LOSPA와 EXULT는 퇴행성 관절질환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무릎관절을 대체하는 제품군이다. 두 제품군은 2026년 상반기 별도 매출의 약 85.6%를 차지해 동사의 수익구조를 형성하는 핵심 사업으로 구분된다.

보조 및 성장 사업으로는 인공견관절 CORALIS, 척추고정체 LOSPA IS와 기타 정형외과용 제품이 있다. 인공견관절은 일반 전치환 제품과 역행성 제품을 비롯하여 환자 맞춤형 수술기구 PSI(Patient Specific Instrument), 골 결손에 대응하는 Glenoid Baseplate, Short Stem 및 Fracture Stem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 척추 분야에서는 흉요추 고정용 나사못, 최소침습 수술용 제품, 경추 플레이트 및 추간체 유합용 케이지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인공족관절과 연조직 고정장치 등으로도 연구개발 범위를 넓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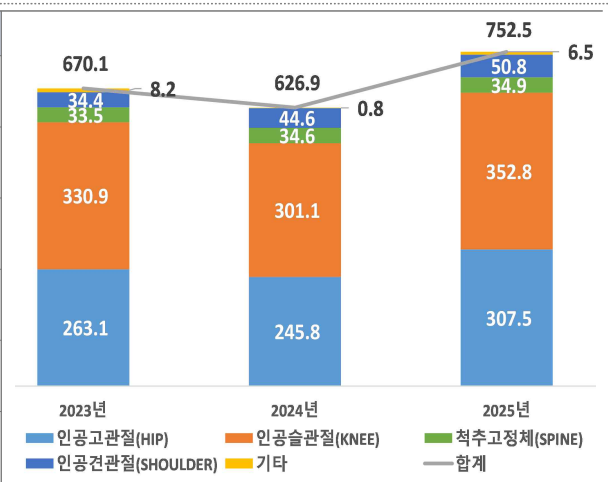
연결 사업구조에서는 미국 내 인공관절 판매를 담당하는 Corentec America와 건강검진 서비스·의료기기 유통 및 미국의 인공관절수술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선헬스케어인터내셔널이 주요 종속회사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연결 기준 사업영역은 국내 인공관절 제조·판매에서 해외 판매와 의료서비스까지 확대되어 있다. 반면 2025년 우성제약 지분을 매각하고 중국 법인을 청산함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2024년 말 4개에서 2025년 말 2개로 감소하였으며,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는 변화도 나타났다.

사업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고관절·슬관절을 안정적인 기반사업으로 유지하면서 견관절·척추·족관절 등 정형외과 전반으로 견관절·척추·족관절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 판매법인과 현지 의료서비스 접점을 활용해 해외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 매출이 여전히 고관절과 슬관절에 집중되어 있어 신규 제품의 실질적인 매출 기여 확대 여부와 해외 판매채널의 안정적인 정착 여부가 사업 다변화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동사의 제품 매출 실적

(단위 :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구분	2023년	비중	2024년	비중	2025년	비중
인공고관절 (HIP)	263.1	39.3%	245.8	39.2%	307.5	40.9%
인공슬관절 (KNEE)	330.9	49.4%	301.1	48.0%	352.8	46.9%
척추고정체 (SPINE)	33.5	5.0%	34.6	5.5%	34.9	4.6%
인공견관절 (SHOULDER)	34.4	5.1%	44.6	7.1%	50.8	6.7%
기타	8.2	1.2%	0.8	0.2%	6.5	0.9%
제품 매출 합계	670.1	100.0%	626.9	100.0%	752.5	10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판매조직 및 판매전략

동사의 국내 판매경로는 직영, 위탁대리점, 판매대리점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된다. 직영은 병원과 동사가 직접 제품 및 대금을 거래하는 방식이며, 위탁대리점 방식은 대리점이 병원 납품을 지원하되 동사가 병원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회수하고 대리점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판매대리점 방식에서는 대리점이 제품과 대금의 유통을 함께 담당한다. 해외 판매는 현지 딜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미국에서는 현지 법인도 판매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의료기기 영업은 단순 제품 유통보다 의료진의 사용 경험과 임상적 신뢰 확보가 중요한 특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동사는 제품 설명회와 사용자 모임, 국내외 학술대회 및 전시회 참가를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별 대리점을 대상으로 제품교육과 정기적인 협력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기술연구소가 의료진의 제품 개선 요구나 수술기구 주문제작 요구에 직접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영업과 연구개발을 연결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주요 매출처는 케어캠프, Biortotec S.A. de C.V., 올소바이오, Implantex Co., Ltd., 스마트엠케어 등이며, 상위 5개 매출처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기준 25.7%로 공시되어 있다. 특정 단일 거래처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구조는 아니지만,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수요처가 형성되어 있어 주요 전문의와 병원 네트워크의 유지가 영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사의 판매전략은 기존 의료진의 제품 사용 경험과 기술 대응능력을 기반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고객당 제품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해외에서는 현지 딜러 및 법인을 활용하는 구조인 만큼 국가별 의료기기 허가와 판매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품개발뿐 아니라 인허가, 의료진 교육, 임상적 신뢰 확보 및 유통채널 관리가 동시에 요구되는 사업모델로 판단된다.

II. 시장 동향

고령화에 따른 수요 확대와 무시멘트·3D 프린팅·로봇수술 등 기술 고도화가 병행 중

목표시장은 질병 및 노화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관절을 인공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의료기기 시장이다. 해당 시장은 인체에 장기간 삽입되는 제품 특성상 생체적합성, 내마모성, 기계적 내구성, 골 고정력과 임상신뢰도가 중요한 경쟁요소이며, 개발·허가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의료진의 기존 제품 선호와 사용경험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주요 성장요인은 고령인구와 골관절염 환자의 증가, 최소침습 수술 수요 확대이며, 기술적으로는 무시멘트형 임플란트, 다공성 표면처리, 3D 프린팅, 환자 맞춤형 수술기구 및 로봇·내비게이션 기반 수술지원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고관절·슬관절 치환용 정형외과 임플란트 시장의 특성

동사의 목표시장은 고관절·슬관절 치환용 정형외과 임플란트 시장으로,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골괴사, 골절 및 외상 등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진 고관절 또는 슬관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공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의료기기 시장이다. 고관절·슬관절 임플란트는 수술을 통해 인체 내부에 장기간 삽입되는 의료기기이므로 일반 의료소모품보다 제품의 안전성, 생체적합성, 내마모성 및 기계적 내구성이 중요하다. 관절을 뼈에 고정하는 방식에 따라 골시멘트를 이용하는 시멘트형(Cemented)과 임플란트 표면으로 골조직이 성장하도록 하는 무시멘트형(Cementless)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금속 및 금속합금,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세라믹 등 다양한 생체재료가 적용된다. 특히 관절면의 마모는 임플란트의 장기 사용기간과 재치환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소재 특성과 표면처리 기술이 제품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수요는 최종적으로 병원에서 시행되는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통해 발생하며, 구매 과정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제품 선호와 수술 경험, 병원의 구매정책, 건강보험 급여체계 및 의료기기 유통망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 장기간 인체에 삽입되는 제품 특성상 의료진은 축적된 임상결과와 제품 신뢰도를 중요하게 평가하며, 사용하던 수술기구와 임플란트를 다른 제품으로 변경할 경우 추가적인 학습과 적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개발·허가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뿐 아니라 의료진의 사용경험과 임상적 신뢰가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제품 간 경쟁은 가격뿐 아니라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규격 구성, 수술 편의성, 장기 임상성적, 골 고정력, 마모 특성 및 의료진에 대한 수술지원 역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대형 의료기기 업체가 고관절·슬관절 임플란트와 함께 수술기구, 내비게이션 및 로봇수술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 단일 임플란트보다 수술 전반을 포괄하는 시스템 경쟁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인공관절 시장에서 대형 업체 중심의 시장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규제 역시 주요 진입장벽이다. 인공관절은 국가별 의료기기 허가를 취득한 이후 판매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도 고관절·슬관절 임플란트는 제품 구조와 사용목적에 따라 Class II 또는 Class III로 관리되고 510(k) 또는 PMA(Premarket Approval) 등의 절차가 적용된다. 또한 ISO 및 ASTM 규격을 통해 관절치환 임플란트의 기계적 성능과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소재·설계 변경이나 신규 제품 상용화에는 시험·인허가 절차가 수반되므로 제품 허가과 임상사용 실적, 의료진 네트워크를 확보한 기존 업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관련하여 국내 무릎 관절 치환 수술 시장은 2025년 2.3억 달러에서 2030년 3.0억 달러로 연평균 5.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글로벌 관절 치환 장치 시장은 2024년 234.2억 달러에서 연평균 4.8% 성장하여 2029년 296.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핵심 트렌드 및 시사점

목표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요인은 인구 고령화와 골관절염 환자 증가이다. 2025년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며, 해당 비중은 2036년 30%, 205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골관절염은 무릎과 고관절에서 주로 발생하며, 세계적으로 2019년 약 5억 2,800만 명이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73%가 55세 이상이며, 무릎 골관절염 환자는 약 3억 6,500만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령화와 비만 및 관절손상 증가가 향후 골관절염 유병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존적 치료로 증상을 관리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관절치환술의 잠재수요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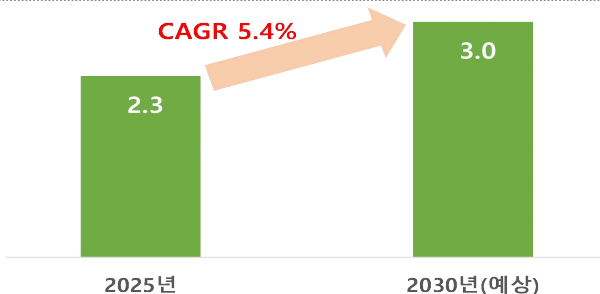
기술 측면에서는 무시멘트형 임플란트와 다공성 표면기술이 확대되고 있다. 무시멘트형 제품은 임플란트와 골조직이 직접 결합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표면의 공극 구조와 골유착 성능이 중요하며, 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 기술은 복잡한 다공성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3D 프린팅은 환자별 골 형상에 맞춘 임플란트와 수술기구 제작뿐 아니라 다공성 구조를 통한 골 고정 성능 개선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미국 FDA에서 3D 금속 적층기술을 적용한 무시멘트형 고관절 임플란트에 대한 510(k) 승인이 이어지고 있다.

수술방식 측면에서는 절개 범위를 줄이고 회복기간을 단축하려는 최소침습 수술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환자의 수술 후 통증과 입원기간을 줄이고 일상복귀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의료수요가 변화하면서 정밀한 수술기구와 내비게이션, 로봇수술 시스템의 적용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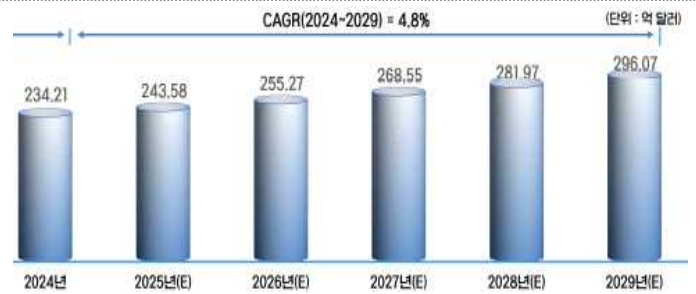
경쟁 측면에서는 글로벌 대형 업체가 임플란트 설계와 소재기술뿐 아니라 로봇·내비게이션, 수술도구 및 의료진 교육체계를 함께 제공하면서 경쟁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국산화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나 기존 글로벌 제품의 장기간 임상실적과 의료진의 사용경험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신규 제품은 단순 가격경쟁보다 장기 안전성 데이터, 임상 사용성과 수술 편의성, 환자 체형에 적합한 제품 규격 및 의료진 지원능력을 통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는 각 국가의 품목허가 이후에도 현지 의료진 네트워크와 유통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품개발과 실제 시장침투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고령인구 증가와 슬관절 치환수술 시장 확대는 고관절·슬관절을 주력으로 하는 동사의 수요 기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3D 프린팅 기반 다공성 코팅, 무시멘트형 제품, 환자 맞춤형 수술기구 등은 시장의 주요 기술변화와 부합한다. 다만 글로벌 대형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제품 허가뿐 아니라 임상신뢰도, 의료진·유통망 확보 및 제품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며, 신규 제품의 매출 기여와 해외시장 침투 속도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림 1] 국내 무릎 관절 치환 수술 시장 (단위 : 억 달러)



[그림 2] 글로벌 관절 치환 장치 시장 (단위 : 억 달러)



자료: Markets and Markets, TDB 시장정보,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해부학적 임플란트 설계와 3D 프린팅·골유착·환자 맞춤형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고도화

동사는 고관절·슬관절을 중심으로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관절 운동을 반영한 임플란트 설계, 3D 프린팅 기반 다공성 표면 및 골유착, 환자 맞춤형 수술기구와 수술지원, 다양한 임상 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연구개발은 연구소와 임상 의료진의 협업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기존 BENCOS·EXULT 제품의 성능 개선과 함께 무시멘트형, 재치환용, 최소침습형, 환자 맞춤형 제품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고관절·슬관절의 구조 설계와 운동성, 다공성 표면처리, 3D 프린팅, 환자 맞춤형 수술기구 등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있고, 주요 제품의 해외 승인을 확보하였다.

■ 핵심 보유기술 및 특징점

동사의 기술 경쟁력은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와 관절의 움직임을 반영해 임플란트의 형상, 표면, 수술기구를 함께 설계하는 역량에 기반한다. 핵심 보유기술은 관절 운동학 기반 임플란트 설계, 3D 프린팅 기반 다공성 표면·골유착 기술, 환자 맞춤형 설계 및 수술지원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관절 운동학 기반 임플란트 설계 기술은 고관절과 슬관절이 실제 인체에서 움직이는 방식과 뼈의 형상을 제품 구조에 반영하는 기술이다. 고관절용 BENCOS M Stem은 대퇴골 내부에 삽입되는 스템의 앞뒤 폭과 길이를 줄이고 끝부분을 곡면으로 설계해 뼈와 연조직의 손상을 줄이면서 삽입 편의성을 높였으며, 대퇴골 내부 형상에 맞춘 테이퍼 구조와 사다리꼴 형태의 목 부분 설계를 통해 축 방향·회전 안정성과 관절 운동범위를 확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슬관절용 EXULT는 대퇴골 구성품과 경골 삽입물의 곡률 및 접촉구조를 조정해 무릎 굴곡 시 접촉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특정 부위에 하중이 집중되는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대퇴골·경골 크기와 삽입물 두께를 조합할 수 있도록 규격을 세분화하였다.

[그림 3] 동사의 인공슬관절과 고관절



자료: 동사 홈페이지,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3D 프린팅 기반 다공성 표면 및 골유착 기술은 인공관절이 환자의 뼈와 장기간 안정적으로 결합되도록 임플란트 표면을 설계·가공하는 기술이다. 동사는 기존 TPS(Titanium Plasma Spray, 티타늄 플라즈마 분사) 코팅과 함께 DED(Directed Energy Deposition, 고에너지 적층) 방식의 금속 3D 프린팅을 활용한 Z코팅 기술을 개발해 임플란트 표면에 골조직이 자라 들어갈 수 있는 다공성 구조를 구현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인공고관절 비구컵에 적용된 이후 대퇴스템과 슬관절·족관절 등으로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플라즈마를 이용해 임플란트 표면의 친수성을 회복시키는 기술과 전용 표면처리 장비도 함께 개발하고 있다. 즉, 동사의 표면처리 기술은 초기 고정뿐 아니라 장기적인 골유착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환자 맞춤형 설계 및 수술지원 기술은 CT 등의 의료영상으로 환자의 뼈 형태를 3차원으로 재구성한 뒤 이를 수술계획과 수술기구 설계에 반영하는 기술이다. 동사는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에 맞춰 임플란트의 위치와 각도를 사전에 계획하고, 계획된 위치에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PSI를 제작하는 기술과 환자 맞춤형 지그 모델링·수술 시뮬레이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견관절용 PSI는 이미 제품화되었으며, 3D 프린팅 기반 맞춤형 인공거골 등 임플란트 자체를 환자별 형태에 맞춰 제작하는 영역으로도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있어 환자별 해부학적 차이에 대응하는 기술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 연구개발 역량

동사의 연구개발은 연구소와 임상 의료진의 협업을 기반으로 제품 설계에서 인허가와 임상적용까지 연결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연구개발 조직은 개발본부와 연구협력 부문으로 구성되며, 개발본부는 관절개발, 연구기획·프로젝트관리 및 인허가 기능을 수행하고 연구협력 부문은 임상연구를 담당한다. 이에 제품개발뿐 아니라 의료진 요구 반영, 개발과제 관리, 국가별 인허가 및 임상적 검증을 연계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다.

고관절 연구개발은 기존 BENCOS 제품군의 적용범위를 넓히면서 재치환, 최소침습 및 무시멘트 수술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3D 프린팅 기반 다공성 코팅을 적용한 BENCOS MIRABO Z CUP CORTINIUM을 제품화하였으며, 이중관절면(Dual Mobility) 비구컵, 환자의 대퇴골 크기를 반영한 Bencos Fit Stem, 최소절개 수술에 적합한 Triple Taper Stem 등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관절 스템과 비구컵의 친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플라즈마 표면처리 장비도 개발하고 있어, 연구개발 범위가 임플란트 형상 설계에서 표면기능 고도화까지 확대되고 있다. 슬관절은 EXULT를 중심으로 제품군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마모와 접촉응력을 줄이기 위한 UCR(Ultra Congruent) 타입 경골 삽입물의 미국 허가를 완료한 데 이어 무시멘트형 EXULT Cementless Knee System과 중증 인대 손상·골 결손 및 재치환 환자에 대응하는 Hinge·Constrained 계열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연구개발 영역은 고관절과 슬관절 외에 견관절, 척추 및 족관절로 확대되고 있다. 견관절에서는 환자 맞춤형 수술기구, 골 결손 보강용 베이스플레이트, Short Stem 및 Fracture Stem을 개발해 제품군을 확장하였으며, 척추 분야에서는 최소침습 수술용 나사못과 추간체 유합용 Cage를 개발하였다. 족관절에서는 3D 프린팅을 활용해 환자의 거골 형상을 구현하는 맞춤형 인공거골을 개발 중이다. 동사의 연구개발은 보유한 설계·적층 제조·환자 맞춤형 기술을 다양한 관절 및 정형외과 제품군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 지식재산권 및 인증 현황

동사의 지식재산권은 인공관절의 형상설계, 표면처리와 다공성 구조, 환자 맞춤형 제품, 수술기구 등 제품 개발과 직접 연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특정 단일 기술에 집중되기보다 고관절·슬관절을 중심으로 제품 설계에서 제조 및 수술지원에 이르는 기술범위를 포괄한다. 또한 BENCOS, LOSPA, EXULT, CORALIS, CORLOCK, LCFIT 및 CORENTEC 등 주요 제품·기업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도 확보하고 있다.

동사의 특허는 현재 주력사업인 고관절·슬관절 임플란트의 구조 설계와 수술 안정성, 골유착 성능을 높이는 기술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고관절 분야에서는 대퇴스템, 비구컵 및 베어링 조립구조와 운동범위를 높이기 위한 스템 형상 관련 특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슬관절 분야에서는 곡률구조와 인서트, 비대칭 설계, 과신전 방지 및 경골 정렬장치 등 관절의 안정적인 움직임과 수술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이 권리화되어 있다. 최근에는 다공성 구조와 3D 프린팅을 활용해 뼈와 임플란트의 결합력을 높이는 기술, 임플란트 표면처리 및 환자 맞춤형 수술기구 관련 특허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동사의 지식재산권은 고관절·슬관절 제품의 성능 개선과 무시멘트형·맞춤형 제품 개발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축적되고 있다.

인증 및 인허가 체계는 인체 삽입 의료기기 사업에 필요한 품질관리와 해외시장 진입을 뒷받침하고 있다. 동사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합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국제규격인 ISO 13485를 기반으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체 개발 인공고관절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시작으로 유럽 CE 인증과 미국 FDA 인허가를 인공슬관절, 척추고정기기, 비구컵 제품 등 주요 제품군에서 확보해 왔다.

■ PES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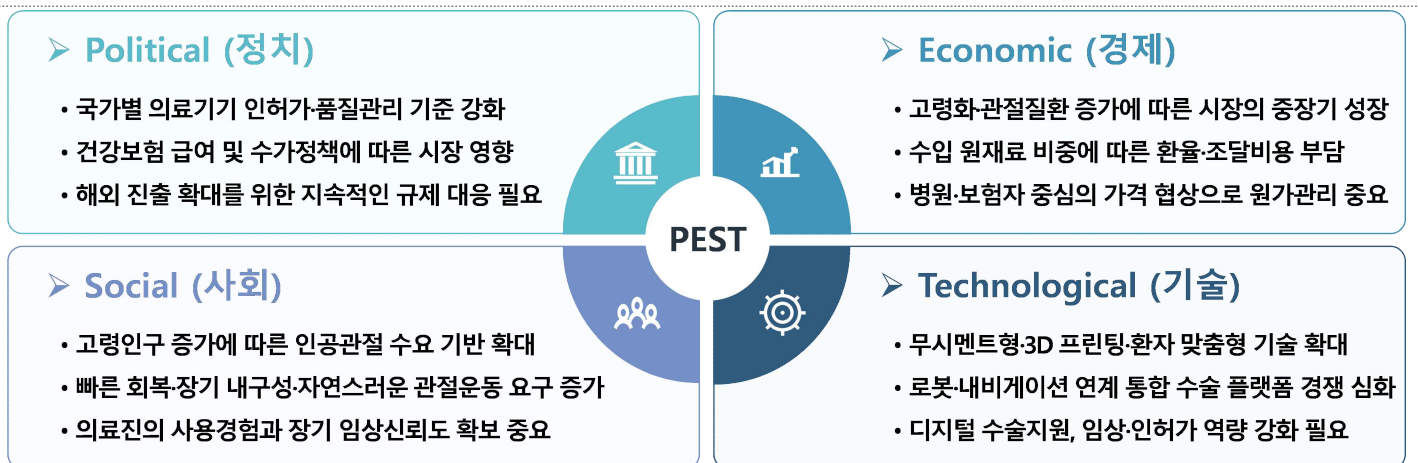
동사의 인공관절 사업은 인체에 장기간 삽입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므로 국가별 인허가, 제조·품질관리 기준 및 보험급여 체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동사는 GMP, ISO 13485, CE 및 미국 FDA 인허가 경험을 확보하고 있어 제도 대응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무시멘트형 슬관절과 차세대 고관절 등 신규 제품의 해외 판매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별 규제 변화와 추가 시험·심사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인공관절은 건강보험 급여와 수가정책이 병원의 제품 선택과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험정책 변화도 주요 외부 변수로 작용한다.

고관절·슬관절 치환용 임플란트 시장은 고령화와 관절질환 증가에 따라 중장기 성장이 예상되지만, 제품가격과 의료비 부담, 환율 및 원재료 조달비용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특히 동사는 주요 원재료와 반제품의 수입 비중이 높아 원화 약세 시 원가부담이 확대될 수 있으며, 해외 매출 증가 과정에서도 환율 변동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병원과 보험자의 가격 협상력이 높은 시장 특성상 수요 확대가 곧바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제품 차별화와 원가관리 역량이 중요하다.

고령화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확대는 동사의 핵심 수요 기반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퇴행성 골관절염, 골괴사 및 골절 등으로 관절기능이 저하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관련 환자군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환자와 의료진의 요구는 통증 완화뿐 아니라 빠른 회복, 자연스러운 관절 운동, 재수술 위험 감소 및 장기 내구성 확보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 체형에 적합한 제품, 최소침습 수술 대응 및 장기 임상신뢰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공관절 시장은 무시멘트형 고정, 다공성 표면, 3D 프린팅, 환자 맞춤형 수술기구, 로봇·내비게이션 기반 수술지원 등으로 기술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동사는 관절 운동학 기반 설계기술과 DED 방식의 3D 프린팅 Z코팅, PSI, 다공성 표면 및 골유착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무시멘트형 슬관절과 맞춤형 제품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업체들이 임플란트와 로봇·내비게이션·수술계획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통합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어, 동사도 디지털 수술지원 연계와 해외 인허가·임상데이터 확보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PEST 분석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IV. 재무분석

사업구조 재편 이후 본업 중심의 성장 기반 강화

동사의 연결 매출액은 2023년 920.5억 원, 2024년 855.9억 원, 2025년 1,004.3억 원으로 2024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2025년 반등하며 외형 성장세를 회복하였다. 수익성은 영업이익이 2023년 70.5억 원에서 2024년 33.7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5년 91.2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도 2024년 3.9%에서 2025년 9.1%로 상승하면서 이익창출력이 개선되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연결 매출액 503.7억 원, 영업이익 23.4억 원을 기록하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별도 기준으로는 인공슬관절과 인공견관절을 중심으로 주력 제품의 매출 성장세가 이어졌다. 재무안정성은 2025년 기준 부채비율 92.8%, 자기자본비율 51.9%에서 2026년 상반기 각각 75.5%, 57.0%로 개선되었으며, 유동비율도 172.4%를 기록하여 단기 지급능력이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냈다.

■ 주력 인공관절 판매 확대에 따른 외형 성장 재개

동사의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920.5억 원에서 2024년 855.9억 원으로 7.0%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1,00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3% 증가하였다. 2025년에는 우성제약 매각과 중국법인 청산에 따른 연결범위의 변동이 발생하는 등 사업구조 변화가 나타났다.

별도 기준 제품별 매출을 살펴보면, 인공슬관절(KNEE) 매출은 2023년 330.9억 원에서 2024년 301.1억 원으로 9.0%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352.8억 원으로 17.2% 증가하며 3개년 중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인공고관절(HIP) 역시 2023년 263.1억 원에서 2024년 245.8억 원으로 6.6% 감소한 뒤 2025년 307.5억 원으로 25.1% 증가하여 외형 회복에 기여하였다. 반면 척추고정체(SPINE)은 2023년 33.5억 원, 2024년 34.6억 원, 2025년 34.9억 원으로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매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인공견관절(SHOULDER)은 2023년 34.4억 원에서 2024년 44.6억 원, 2025년 50.8억 원으로 2년 연속 증가하여 3개년 동안 47.7% 확대되었으며, 주력 제품군 가운데 가장 일관된 성장 흐름을 나타냈다. 그 외 기타(기타 제품, 상품) 매출은 2023년 36.5억 원, 2024년 21.4억 원, 2025년 18.8억 원 수준이었다.

2026년 상반기 연결 매출액은 50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460.5억 원 대비 9.4% 증가하였다. 2023~2025년에는 2024년 일시적인 매출 변동 이후 2025년 연결 매출액이 1,004.3억 원으로 반등하였으며, 제품별로도 인공고관절과 인공슬관절을 중심으로 외형 회복이 진행되었다. 2026년 상반기에도 이러한 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주력 인공관절 판매가 현재 수준의 흐름을 유지할 경우 연간 매출의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

■ 2025년 영업이익 반등으로 수익성 개선

동사의 3개년 영업이익은 2023년 70.5억 원에서 2024년 33.7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5년 91.2억 원으로 크게 회복하였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2023년 7.7%에서 2024년 3.9%까지 하락하였으나 2025년에는 9.1%로 상승하였다. 2025년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7.3% 증가한 가운데 영업이익 증가폭이 이를 크게 상회하면서 최근 3개년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의 수익성 저하에서 벗어나 본업의 이익창출력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매출원가는 2023년 403.5억 원, 2024년 413.1억 원, 2025년 483.3억 원을 기록하였다. 2025년에는 매출 증가와 함께 매출원가도 증가하였으나, 판매비와관리비는 2023년 446.5억 원에서 2024년 409.1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5년에는 429.8억 원으로 소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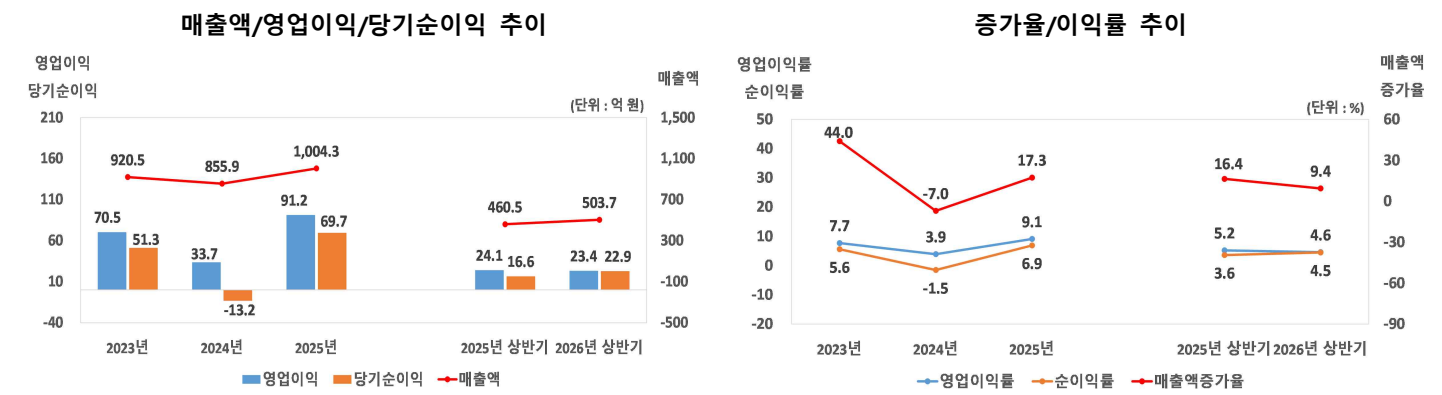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판관비율은 2023년 48.5%, 2024년 47.8%, 2025년 42.8%로 낮아졌으며, 매출 확대 대비 판관비 증가가 제한된 점이 2025년 영업이익률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기순이익 역시 2023년 51.3억 원에서 2024년 -13.2억 원으로 적자 전환하였으나 2025년에는 69.7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였으며, 순이익률도 각각 5.6%, -1.5%, 6.9%를 기록하였다.

2026년 상반기 연결 영업이익은 2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24.1억 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상반기 순이익은 2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16.6억 원보다 증가하였다. 3개년 전체적으로는 2024년 수익성 저하 이후 2025년 회복하면서 이익창출력이 개선되었으며, 2026년 상반기에도 외형 성장은 지속되고 있다. 향후 매출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판관비 증가율이 안정될 경우 매출 확대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다시 나타날 수 있어 수익성의 추가적인 회복 여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부채 축소와 자본 확대로 강화되는 재무안정성

동사의 3개년 자산총계는 2023년 1,871.3억 원, 2024년 1,862.7억 원에서 2025년 1,719.3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2025년에는 우성제약 매각과 CORENTEC CHINA CO., LTD 청산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4개사에서 2개사로 감소하며 연결범위가 변동되며 자산 규모가 다소 축소되었다. 유동비율은 3년간 123.6%, 133.1%, 160.7%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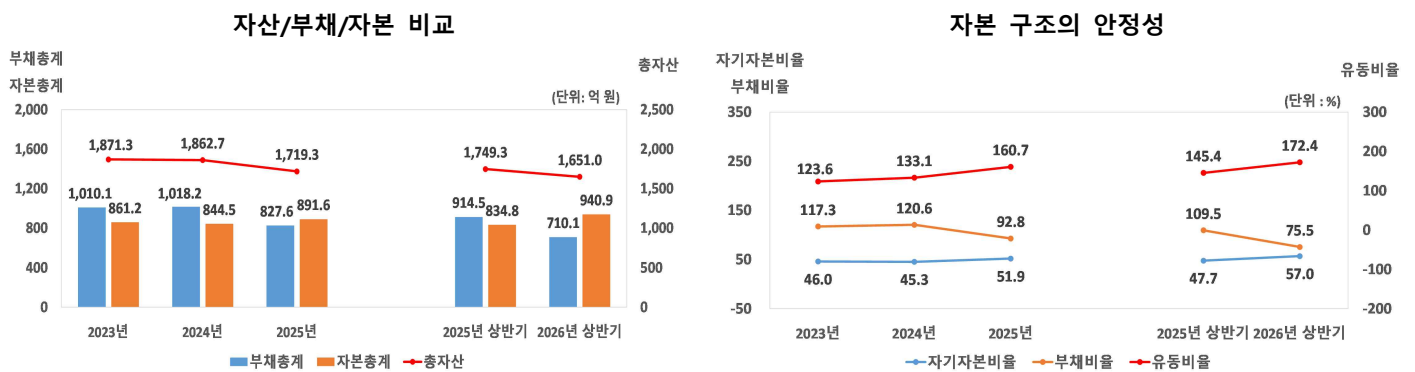
부채총계는 2023년 1,010.1억 원, 2024년 1,018.2억 원에서 2025년 827.6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2023년 117.3%, 2024년 120.6%에서 2025년 92.8%로 낮아졌다. 유동부채도 2024년 876.3억 원에서 2025년 696.3억 원, 2026년 상반기 608.7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단기적인 재무부담이 완화되었다.

자본총계는 2023년 861.2억 원에서 2024년 844.5억 원으로 1.9%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891.6억 원으로 5.6% 증가하며 회복되었다. 자기자본비율은 2023년 46.0%에서 2024년 45.3%로 소폭 하락한 뒤 2025년 51.9%로 상승하였다. 2024년에는 당기순손실 발생 등의 영향으로 자본총계가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과 함께 자본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동시에 부채총계가 감소하면서 자기자본비율 개선 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2026년 상반기 유동비율은 172.4%, 부채비율은 75.5%, 자기자본비율은 57.0%로 나타났으며, 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등에 따라 부채 및 자본구조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향후 영업실적 개선을 통한 영업현금창출이 뒷받침되고 현재의 부채 관리가 유지될 경우 재무부담 완화와 자기자본 중심의 재무구조 강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6]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매출액	920.5	855.9	1,004.3	460.5	503.7
매출액증가율(%)	44.0	-7.0	17.3	16.4	9.4
영업이익	70.5	33.7	91.2	24.1	23.4
영업이익률(%)	7.7	3.9	9.1	5.2	4.6
순이익	51.3	-13.2	69.7	16.6	22.9
순이익률(%)	5.6	-1.5	6.9	3.6	4.5
부채총계	1,010.1	1,018.2	827.6	914.5	710.1
자본총계	861.2	844.5	891.6	834.8	940.9
총자산	1,871.3	1,862.7	1,719.3	1,749.3	1,651.0
유동비율(%)	123.6	133.1	160.7	145.4	172.4
부채비율(%)	117.3	120.6	92.8	109.5	75.5
자기자본비율(%)	46.0	45.3	51.9	47.7	57.0
영업현금흐름	26.3	-66.1	264.6	143.6	85.6
투자현금흐름	16.3	9.5	22.5	-21.3	-33.7
재무현금흐름	-30.6	54.1	-279.6	-15.8	-2.3
기말현금	170.8	171.6	178.0	273.4	231.4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동사 실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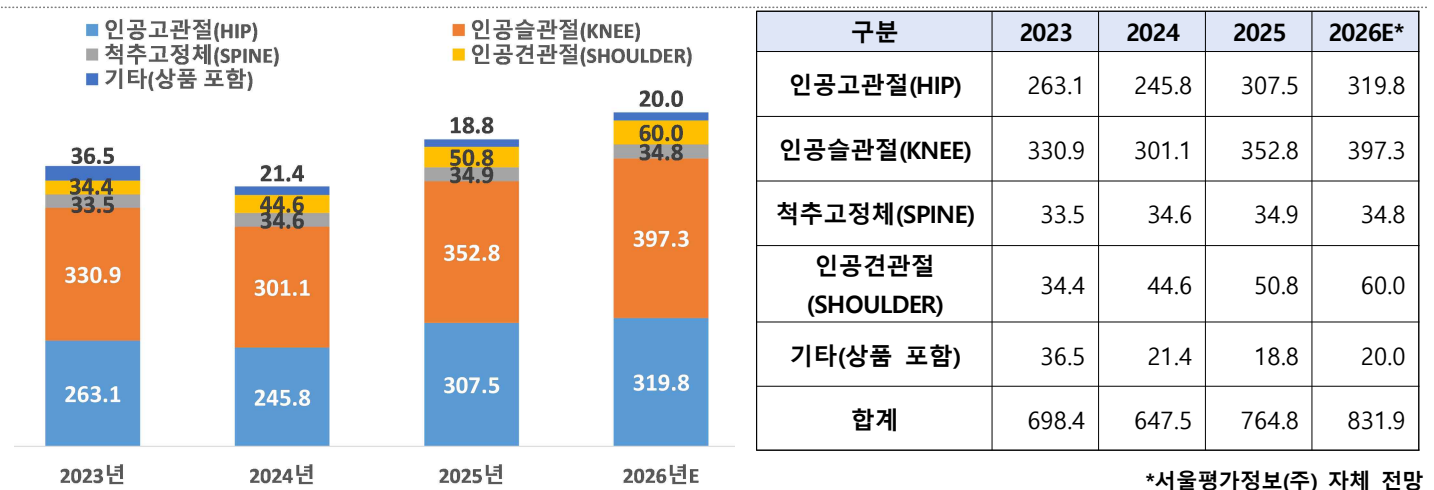
동사의 매출은 2023년 698.4억 원에서 2024년 647.5억 원으로 감소한 이후 2025년 764.8억 원으로 회복되었으며, 2026년에는 83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 개선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공고관절과 인공슬관절이 주도할 전망이다. 인공고관절 매출은 2025년 307.5억 원에서 2026년 319.8억 원으로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며, 인공슬관절은 같은 기간 352.8억 원에서 397.3억 원으로 확대되어 전체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에 따른 관절치환 수요 증가와 기존 병원 거래기반을 바탕으로 주력 제품의 안정적인 매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등 해외 판매 확대가 추가 성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제품별로는 인공슬관절과 인공건관절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전망이다. 인공슬관절은 2024년 301.1억 원에서 2025년 352.8억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6년에는 397.3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EXULT 제품군 확대와 미국 인허가 제품 증가, 무시멘트형 및 재치환용 제품 개발이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공건관절도 2023년 34.4억 원에서 2026년 60.0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환자 맞춤형 수술기구와 Short Stem, Fracture Stem 등 제품군 확장이 매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척추고정체는 2025년 34.9억 원, 2026년 34.8억 원으로 유사한 수준이 예상되어 당분간 실적 기여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기타 부문 역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합하면 동사의 실적은 기존 고관절·슬관절 사업의 회복과 슬관절 중심의 성장, 건관절 제품군 확대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력 제품의 세부 규격 확대와 3D 프린팅 기반 표면처리, 무시멘트형 및 환자 맞춤형 제품 개발이 실제 판매로 연결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제품 믹스 개선과 해외 매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제품의 해외 인허가 시점과 의료진 채택 속도, 글로벌 대형 업체와의 경쟁, 수입 원재료 비중에 따른 환율 및 조달비용 변동은 실적 확대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그림 7]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인공관절 중심의 사업구조 재정비와 고부가 제품 고도화·미국시장 확대로 성장기반 강화

동사는 2025년 우성제약 지분 매각과 중국 법인 청산을 통해 사업다각화보다 인공관절 중심의 핵심사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재정비했으며, 고관절·슬관절 제품의 고도화와 미국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제품 측면에서는 UCR 경골 삽입물의 미국 FDA 인허가, 무시멘트형 슬관절, 재치환·고난도 수술용 제품, 최소침습형 스템 및 3D 프린팅 기반 표면처리 기술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인공관절 수요 증가와 무시멘트형·환자 맞춤형 제품 확대가 성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해외 인허가 일정, 글로벌 대형업체와의 경쟁, 현지 의료진·유통망 확보가 주요 변수로 판단된다.

■ 최근 변동사항

동사의 사업구조는 외형적 사업다각화에서 인공관절 중심의 핵심사업 재정비로 방향이 선포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말에는 의약품 개발 자회사인 우성제약과 중국 판매법인을 연결대상으로 보유하면서 의료·헬스케어 전반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는 구조였으나 2025년에는 우성제약 지분을 전량 처분하고 중국 법인의 청산을 완료하면서 연결대상 자회사가 축소되었다. 이에 전문의약품을 통한 사업다각화보다 인공관절 본업, 미국 판매법인 및 선헬스케어인터내셔널을 통한 의료서비스·유통 연계에 상대적으로 무게가 실렸다.

제품개발 측면에서는 기존 고관절·슬관절의 단순 규격 확대보다 고난도 수술 대응과 해외시장 진입을 위한 제품 고도화가 구체화되었다. 슬관절에서는 EXULT 계열의 UCR 경골 삽입물이 2025년 미국 FDA 인허가를 완료하였고, 무시멘트형 슬관절, 심한 인대 손상과 골 결손 및 재치환 환자를 위한 Hinge·Constrained 계열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반치환용 슬관절 등 일부 개발과제는 중단 또는 조정되어 연구개발 자원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품군에 집중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고관절에서는 이중관절면 비구컵, 환자 대퇴골 형상을 반영한 스템, 최소침습 수술에 적합한 짧은 스템과 표면처리 장비 개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Z코팅 기술도 고관절에서 슬관절·족관절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 향후 전망

동사의 사업환경은 고령화와 관절질환 증가에 따른 인공관절 수요 확대가 중장기적 성장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인구 비중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고관절과 인공슬관절이 주력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 구조 변화는 기초 수요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다만 의료진의 기존 제품 선호와 장기 임상자료의 중요성이 높은 시장 특성상 수요 증가가 신규 제품의 즉각적인 점유율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며, 제품의 임상신뢰도와 병원 네트워크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동사가 개발하고 있는 무시멘트형 슬관절과 3D 프린팅 기반 다공성 표면처리 기술의 시장 적합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정형외과학회(AAOS)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록자료(AJRR)에 따르면 미국 내 무시멘트형 슬관절 치환술의 적용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로봇을 활용한 슬관절 치환술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골유착 성능을 높이는 Z코팅 및 무시멘트형 EXULT 개발에는 긍정적인 환경이나, 동시에 글로벌 업체들이 임플란트와 로봇·내비게이션·수술계획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통합 플랫폼 경쟁을 강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사가 임플란트 자체의 설계·표면처리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수술지원 기술 및 외부 디지털 플랫폼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지가 중장기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제품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기존 고관절·슬관절의 세부 제품 확장과 함께 재치환·무시멘트·최소침습 및 환자 맞춤형 영역으로의 확대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무시멘트형 EXULT, Triple Taper Stem, Hinge·Constrained 슬관절과 3D 프린팅 기반 맞춤형 제품은 기존 제품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환자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일부 제품은 아직 설계·인허가 단계에 있고 미국 출시 일정도 장기간에 걸쳐 설정되어 있어 실제 사업 기여 시점은 개발 완료, 임상평가 및 현지 인허가 진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2026년 반기 공시에서도 일부 해외 인허가 목표 일정이 조정된 만큼 개발 일정의 변동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사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판단된다. 동사는 미국 판매법인을 보유하고 있고 주요 제품의 FDA 인허가를 순차적으로 확보해 왔으며, 선헬스케어 계열을 통해 미국 내 인공관절 수술 전문시설과의 연계 기반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 의료진·유통망·수술서비스 접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Zimmer Biomet, Stryker, Johnson & Johnson MedTech, Smith+Nephew 등 글로벌 대형 업체가 장기간 축적한 임상자료와 의료진 네트워크, 로봇수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시장 확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향후에는 FDA 허가 제품의 실제 병원 채택, 현지 의료진 네트워크 확대 및 신규 제품의 임상 신뢰도 축적 여부가 해외사업의 핵심 확인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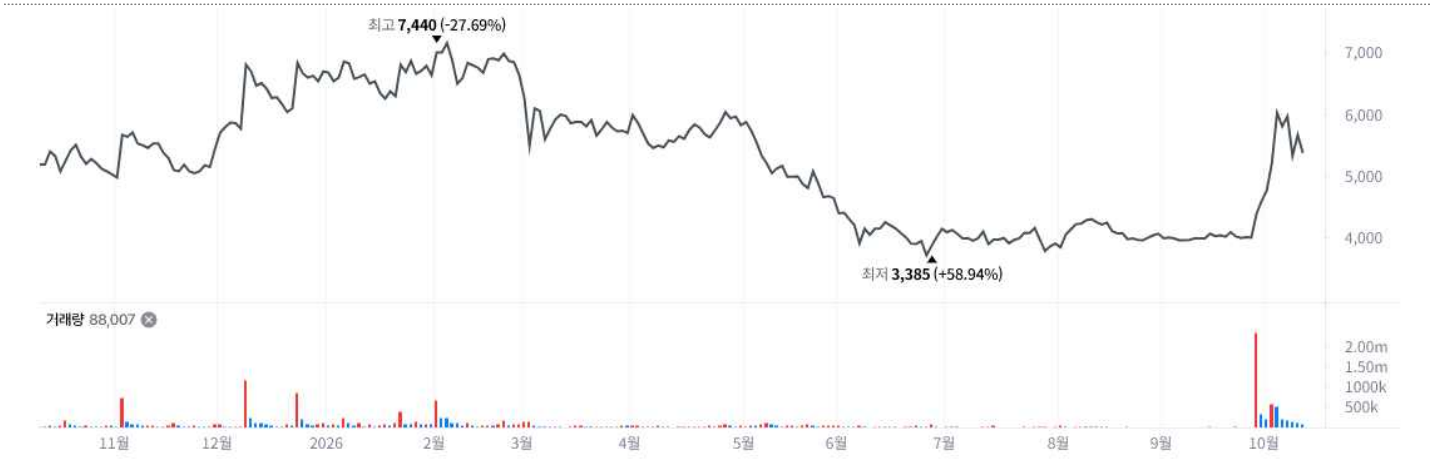
종합하면 동사는 2024년까지의 사업다각화 기조에서 벗어나 2025년 이후 인공관절 중심의 사업구조 정비, 고부가·고난도 제품 개발, 미국시장 확대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고령화와 무시멘트형·맞춤형 인공관절 수요 증가는 우호적 요인이지만, 해외 인허가의 장기화와 글로벌 업체와의 기술·유통 경쟁은 부담요인이다.

코렌텍(10454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6.10.14)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코렌텍	X	X	X